

역사서 개관

동네세메줄 '성경-정독' 2차 성경주일(6월 4일)

역사서 정독 (6월 4일-7월 2일)

-목차-

★“왜 역사인가?” : 왜 역사를 알아야 하는가?	-----	2
★“역사서란 무엇인가?” : 역사서의 정의	-----	2
★역사서의 종류	-----	2
★이스라엘의 역사 요약	-----	3
★각 권의 중심 주제, 구조, 배경		
I. 여호수아	-----	5
II. 사사기	-----	6
III. 룻기	-----	7
IV. 사무엘상.하	-----	8
V. 열왕기상.하	-----	11
VI. 역대상.하	-----	14
VII. 에스라-느헤미야	-----	15
VIII. 에스더	-----	16

★“왜 역사인가?” : 왜 역사를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역사”라는 방식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흐르는 역사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다.

★“역사서란 무엇인가?” : 역사서의 정의

역사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다. 구약성경의 모세오경과 선지서들도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지만 역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집중한다.

★역사서의 종류

역사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포로기 이전 역사서

-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기록된 책
- 여호수아, 사사기, 룯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2) 포로기 이후 역사서

-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 기록된 책
-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스라엘의 역사 요약

1. 역사 이전 시대 (창세기 1~11장)
2. 족장시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3. 이스라엘의 탄생 (출애굽: 주전 1250년, 시내산 언약)
 -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탄생
 - 이스라엘 국가의 제정
 -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짐
4. 가나안 정복 전쟁과 정착
5. 사사시대
6. 통일왕국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7. 분열왕국시대 (남유다, 북이스라엘: 주전 931-586년)
 - 북이스라엘의 멸망 (주전 722년)
 - 남유다의 멸망 (주전 586년)
8. 포로기
9. 포로기 이후 (포로들의 귀환: 주전 538년, 성전재건)

구약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9개의 주요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기간은 역사 이전 시대(원역사, 原歷史)이다. 이 시대는 인류의 역사 기록이 존재하기 이전의 시대를 말한다. 성경의 처음 11장은 이 역사 이전 시대와 관련된 일들을 다루고 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아브라함의 등장 전까지 인류 역사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다. 이 기간에 하나님의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아벨의 죽음, 대홍수, 바벨탑의 건설 등의 사건들이 있었다.

두 번째 기간은 족장시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를 말한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통해 시작되는 시기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심을 통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간의 타락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열어 주신다.

세 번째 기간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국가로서 수립되는 때, 곧 출애굽 시대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다.

네 번째 기간에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된다. 이 기간과 관련된 책은 여호수아이다.

다섯 번째 기간은 사사시대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사사'라고 불리는 민족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통치를 받게 된다. 사사들은 당시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지도자를 뜻한다. 이 기간과 관련된 책은 사사기이다.

여섯 번째 기간은 통일왕국시대이다.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통치한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남북이 한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통일왕국시대를 가졌다. 통일왕국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다. 이 기간과 관련된 책은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이다.

일곱 번째 기간은 분열왕국시대이다. 통일된 국가였던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우리나라처럼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는 분열왕국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솔로몬의 통치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다.

이러한 분열 왕국의 시대가 계속되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앓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게 된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 이 기간과 관련된 책으로 열왕기상.하와 대부분의 선지서들을 들 수 있다.

여덟 번째 기간은 포로기이다. 이 기간은 남유다의 멸망 이후의 시간을 말한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정복된 후부터 포로기에 접어들게 된다.

마지막 기간은 포로기 이후 시기이다.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제국은 주전 539년에 고레스 대왕이 다스리던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고레스 대왕은 바벨론 제국을 차지한 후 조서(고레스 칙령)를 내려 바벨론으로 끌려 온 유다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한다. 또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후원한다. 고레스의 명령으로 인해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역사서는 네 번째 시기(가나안 정복전쟁과 정착)부터 아홉 번째 시기(포로기 이후)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다.

★각 권의 중심 주제, 구조, 배경

I-1. 여호수아의 중심 주제

여호수아서는 타락한 가나안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룬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땅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거룩한 정복 전쟁,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의무,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I-2. 여호수아의 문학적 구조

- 1) 전반부 (수1:1~12:24)
 - 약속의 땅(가나안 땅)의 정복 이야기
 -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아간의 범죄 등
- 2) 후반부 (수13:1~24:33)
 - 정복되지 못한 땅들의 리스트
 - 정복된 땅들의 지파별 분배
 - 여호수아의 고별사

I-3. 여호수아의 역사적/지리적 배경

◆가나안 땅의 지파별 분배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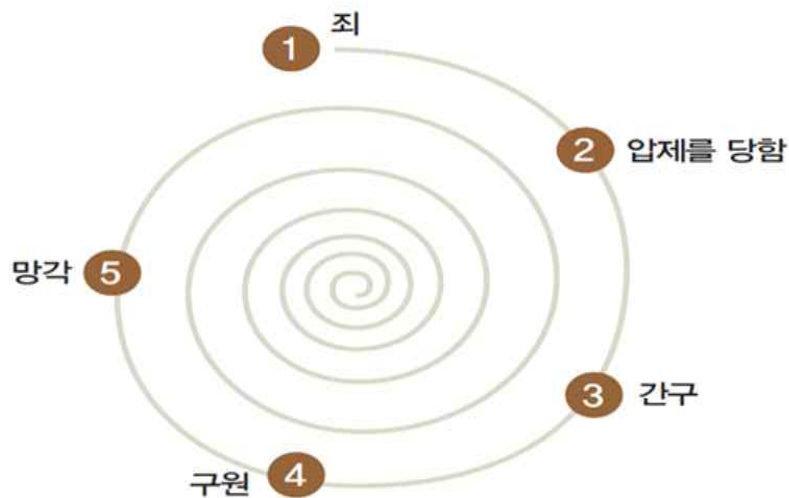
II-1. 사사기의 중심 주제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절망적인 상황, 약속의 땅의 부분적 정복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 사사시대 사람들의 습관적인 불순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참된 왕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사사기는 당시 사회가 얼마나 어두운 시기였는지를 보여준다. 사사기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을 섬겼고 주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한다.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였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했다.

사사기는 점점 더 악화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준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심각한 도덕적 타락, 예배의 상실, 동족 간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한다.

사사기는 당시 사람들이 가진 순환적인 삶의 패턴을 기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①죄를 짓고 그 결과로 이방 민족의 ②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③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④구원해 주신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또다시 ⑤망각하고 죄를 짓는다.

사사기의 핵심 주제는 마지막 절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사사기 21:25)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이 필요하다는 말로 사사기는 마무리된다.

II-2. 사사기의 문학적인 구조

1) Part I (삿1:1~3:6)

- 약속의 땅(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회고
- 여호수아의 죽음
- 내쫓지 못한 가나안 족속의 명단
- 이스라엘의 불순종

2) Part II (삿3:7~16:31)

-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환적인 삶
- 사사들의 이야기 (옷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3) Part III (삿17:1~21:25)

-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

III-1. 룯기의 중심 주제

룯기의 주인공은 룯이라는 여성이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룯기와 사사기를 한 권의 책, 하나의 세트로 이해하였다. 이렇게 사사기와 룯기가 한 권의 책으로 읽힌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 두 책이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사기와 룯기는 모두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룬다.

사사기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끝난 다음 우리는 룯기를 만나게 된다. 룯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이 책은 사사기의 사람들과 동시대를 살아 갔지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한다.

비록 사사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만, 그러한 시대에도 신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룯기는 어두운 시기인 사사시대에 거룩하게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룯기의 주인공들은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여호와와 율법을 지키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살아간다.

특히 중요한 대목은 룯기는 다윗 왕조의 계보를 기록한다는 점이다. 이방 여인 룯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모가 된다. 그리고 다윗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 룯기는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제기한 문제, 그러니까 주의 백성에게 참된 왕이 필요하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III-2. 룯기의 문학적인 구조

- 1) Part I (룯1:1~1:22):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룯에게 일어난 일
- 2) Part II (룯2:1~2:23): 보아스를 만난 룯
- 3) Part III (룯3:1~3:18):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룯
- 4) Part IV (룯4:1~4:17): 보아스와 룯의 결혼
- 5) Part V (룯4:18~4:22): 다윗의 계보

IV-1. 사무엘상.하의 중심 주제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사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등장과 통치에 대해서 기록한다. 그리고 다윗의 등장과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다룬다.

이 책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종교적 중심지로서의 예루살렘, 다윗의 죄악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강조한다.

IV-2. 사무엘상.하의 문학적인 구조

- 1) Part I (삼상 1장~7장) : 사무엘 이야기
- 2) Part II (삼상 8장~15장) :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
- 3) Part III (삼상 16장~31장) :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 4) Part IV (삼하 1장~24장) : 다윗 이야기

IV-3. 사무엘상.하의 역사적/지리적 배경

◆ 이스라엘의 주적: 블레셋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의 주적으로 등장하는 민족이 있다. 바로 블레셋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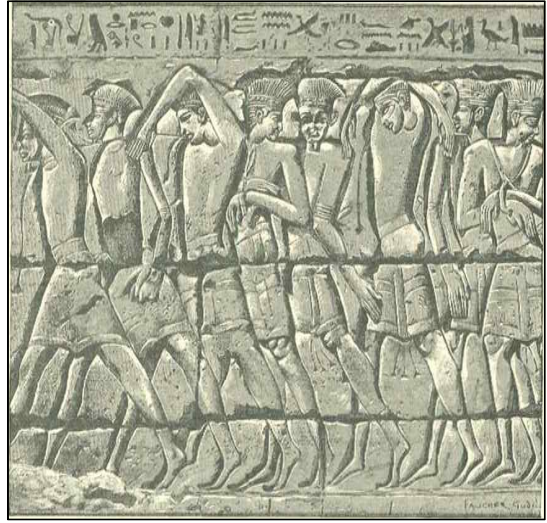
기원전 1250년 즈음, 즉 모세의 때에,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새롭게 이주해 온 해양민족들의 출현에 의해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해양민족들은 에게해 주변 지역에서 기원한 그리스계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고대 이집트의 문헌들에 의하면 이 에게해 주변 지역에서 이주해 온 바다 사람들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연합하여 고대 근동의 국가들을 침략하였고 이때 참전한 해양민족들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 민족이다. 이 해양민족 연합군의 전투력은 탁월했는데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블레셋 민족과 이집트의 전쟁



이집트의 포로로 잡힌 블레셋 사람들

결국 블레셋 민족은 가나안 남쪽 해안 지역에 정착하게 된다. 그들은 발전된 철기 기술과 전쟁 능력을 바탕으로 가나안 안에서 점차 세력을 넓혀가며 영토를 확장한다. 그리고 근접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전쟁을 하게 된다.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주적’으로 불릴만 하다.

블레셋의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 남쪽 해안 지역이었다.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그론이 블레셋인들이 거주했던 주요 도시들이다.





구약성경에서 블레셋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다윗과 골리앗이다. 훗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예상을 뒤엎고 승리한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와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다.



또한 “블레셋”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일 것이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르심을 받는다.

V-1. 열왕기상.하의 중심 주제

열왕기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스라엘 왕조의 불순종과 몰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과정을 기록한다.

이 책은 솔로몬의 실패, 이스라엘 영토의 분단, 열왕들의 신실하지 못함, 대제국들의 출현, 이스라엘 왕조의 쇠퇴와 멸망에 대해서 다룬다.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속적인 불순종에 대해서 기록한다. 이 책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V-2. 열왕기상.하의 문학적 구조

- 1) Part I (왕상 1:1~11:43):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일들
- 2) Part II (왕상 12:1~15:32): 여로보암 왕조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일들
- 3) Part III (왕상 15:33~16:14): 바아사 왕조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일들
- 4) Part IV (왕상 16:15~16:22): 북이스라엘이 무정부 상태일 때 일어난 일들
- 5) Part V (왕상 16:23~왕하 9:28): 오므리 왕조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일들
- 6) Part VI (왕하 9:29~17:6): 예후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일들
- 7) Part VII (왕하 17:7-25:30): 남유다의 멸망 과정

V-3. 열왕기상하의 역사적/지리적 배경

◆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제국: 앓수르



앗수르는 주전 911년부터 605년까지 약 300년 동안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래 없는 초강대국이었다. 탁월한 군사력과 철기를 다루는 기술, 행정능력을 바탕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거의 모든 강대국들과 도시국가들을 정복했다. 앓수르 제국의 전성기에는 심지어 이집트까지 앓수르의 속국이 될 정도로 강했다.



앗수르 제국의 궁수



죄수들의 목의 가죽을 벗기는 앗수르 군사들

앗수르 제국은 동서남북 전 방향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기 때문에 앗수르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앗수르는 바벨론 제국의 등장 전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장 큰 위협이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기원전 722년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살아남기는 했으나 끊임없이 앗수르의 괴롭힘을 받게 된다.

앗수르 제국의 식민 통치 방식 가운데 구약성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그들의 강제 이주 정책이다. 이 강제 이주 정책은 고대 제국들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식민 정책이다. 앗수르인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국가의 거주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대신에 그곳에 그들이 통치하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주, 정착시켰다.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살게 하는 민족 혼합 정책을 통해서 그들은 정복된 민족들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반란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호세아 구년에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블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열왕기하 17:6)

이렇게 막강했던 앗수르 제국은 주전 627년 이후로 급격하게 약해진다. 오랜 시간 동안 제국의 확장과 유지를 위해 반복된 전쟁은 앗수르인들을 지치게 만들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시기를 이용해 앗수르의 속국으로 있었던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을 선언했다.

결국 앗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주전 612년에 과거 앗수르의 속국이었던 민족들의 연합군에 의해 함락된다. 앗수르 제국의 멸망 이후 거대한 제국의 상당 부분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점령된다.

◆ 남유다를 정복한 제국: 바벨론

바벨론 왕국은 주전 626년부터 539년까지 갈대아인들의 지배를 받았다. 갈대아인들은 바벨론의 토착민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쪽에서 이주해 온 유목민들이었다.

갈대아인 왕조는 동맹국들과 함께 앗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스웨를 함락시킨다. 그리고 앗수르 제국의 상당 부분을 정복한다. 이로써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된다.



주전 6세기 바벨론 제국의 영토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된다. 바벨론 제국은 앗수르 제국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거주민들의 강제 이주 정책을 사용하였다. 예레미야 39장을 보면 예루살렘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 이후로 남유다는 포로기를 맞이하게 된다.

바벨론 왕국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에게 정복당한다. 페르시아인들은 현대의 이란 지역에 살았던 유목민들이었다.

VI-1. 역대상.하의 중심 주제

역대기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부터 고레스 칙령 때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다. 특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인 성전과 성전 예배에 대해서 강조한다. 또한 남유다 왕들의 좋은 행실들을 부각시킨다.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안식,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강조한다.

VI-2. 역대상하의 문학적인 구조

- 1) Part I (대상 1:1~9:44):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보 (아담~사울)
- 2) Part II (대상 10:1~29:30): 다윗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일들
- 3) Part IV (대하 1:1~9:31):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일들
- 4) Part V (대하 10:1~25:28): 르호보암 왕 때부터 웃시야 왕 때까지 일어난 일들
- 5) Part VI (대하 26:1~36:23): 웃시야 왕 때부터 고레스 칙령 때까지 일어난 일들

VI-3. 역대상하의 역사적/지리적 배경

◆포로기 이후의 역사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국: 페르시아

페르시아인들은 기원전 6세기에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고레스 대왕의 지도력 아래 페르시아 제국은 메대, 리디아, 바벨론 왕국을 정복한다. 페르시아 제국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제국 중의 하나이다. 페르시아 제국은 550년에서 330년까지 존재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한다.



고레스 대왕의 무덤

고레스 대왕의 식민 통치 방식은 앗수르나 바벨론의 왕들과 달랐다. 그는 자신이 정복한 식민지의 국민을 대할 때 좀 더 우호적이었다. 고레스 대왕은 그가 정복한 민족들에게 은인이나 영웅으로 인식되기를 바랐다. 그런 맥락에서 고레스 대왕은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여 식민국들의 관습과 종교를 존중해 주었다. 그는 이러한 우호적인 식민 정책을 통해 그가 정복한 바벨론인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고레스 대왕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강제로 이주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왔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정치 지도자였던 고레스를 사용하여 그의 백성들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다.



고레스 대왕의 식민 정책이 기록된 ‘고레스 실린더’

현재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레스 실린더’는 1879년에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페허에서 발견되었다. 주전 6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원통 모양의 진흙 토기에 고레스 대왕의 초기 정책이 아카드어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고레스 대왕이 정복한 국가들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포함되어 있다.

이 실린더에 새겨진 한 문장이다.

“본인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VII-1. 에스라-느헤미야의 중심 주제

고대 유대인들은 에스라-느헤미야를 두 개의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간주했다. 에스라-느헤미야는 강제 이주 되었다가 유다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에스라-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유대인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리는 시점(기원전 539년)부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유대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때(기원전 432년)까지의 사건들을 기록한다.

특히 에스라-느헤미야는 유대 공동체의 성전건축, 성벽건축,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VII-2. 에스라-느헤미야의 문학적인 구조

- 1) Part I (스 1:1~6:22): 고레스 칙령과 제2성전 재건
- 2) Part II (스 7:1~10:44): 에스라의 귀환과 사역
- 3) Part III (느 1:1~7:73): 느헤미야의 귀환과 성벽 재건
- 4) Part IV (느 7:73~13:3): 유대 민족의 언약 갱신과 예루살렘의 재봉헌
- 5) Part V (느 13:4~31): 느헤미야의 개혁

VIII-1. 에스더의 중심 주제

에스더서는 유다로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이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일을 기념하는 ‘부림절’의 유래를 설명한다.

에스더서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에스더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의 뒤에서 역사한다. 역사는 마치 인간들이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VIII-2. 에스더의 문학적인 구조

- 1) Part I (에 1:1~2:23): 왕비가 된 에스더
- 2) Part II (에 3:1~7:10):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에스더
- 3) Part III (에 8:1~10:3): 부림절의 제정

